

개성상인의 기원

양정필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사람들은 역사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사극이 방송된다. 인물 혹은 사건을 소재로 한 역사 영화도 계속 제작된다. 일상에서 쉽게 역사를 접할 수 있는 것이다. 중·고등학교 시절 배웠던 지식들도 조금은 머릿속에 남아 있으니 사람들은 우리 역사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일반인이 만날 수 있는 역사는 대개 정치적 인물 혹은 사건에 대한 것이다. 역사 속 경제 분야에 대한 이야기는 접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제를 중심으로 역사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한다.

오백 년 역사를 자랑하는 집단

생소할 수 있는 경제의 역사를 안내해 줄 사람은 개성상인이다. 개성상인은 중·고등학교 역사책에 나올 만큼 유명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개성상인을 알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에 실린 내용은 단 몇 줄에

불과하여서 개성상인의 존재는 알지만 그들의 장구한 역사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개성상인은 오백 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큰 전쟁을 자주 겪은 우리 역사에서 수백 년 동안 존속한 존재는 매우 드물다. 그런데 개성상인은 그 어렵다는 장기 존속은 물론 현재도 활동하고 있으니, 역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개성상인 후손들이 경영하는 기업으로는 아모레퍼시픽, 녹십자, 신도리코, 한일시멘트, OCI, 대한유화공업주식회사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개성상인이 세운 기업은 꽤 있다. 설립자는 모두 개성상인이었으나 지금은 대부분 2세들이 계승하여 경영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는 개성상인의 정체성을 지닌 기업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인도 있어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다.

개성상인은 상인이므로 당연히 그들 활동의 중심은 상업이었다. 따라서 개성상인을 통해서 전근대 상업의 일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들은 돈 버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귀재였다. 개성상인 이야기를 통해 돈 버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을 것이다.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

개성상인을 이야기하려면 그들이 언제 어떻게 해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즉 개성상인의 기원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기원을 잘 알면 그들의 성격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원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 이번 이야기는 기원에 대한 설명으로 한정될 것이다.

개성상인의 기원을 살펴보려면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는

격변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고려 말기는 정치 기강이 무너지고 경제는 양극화되어 소수의 권문세족과 사원이 경제력을 장악하고 다수의 백성은 비참하고 곤궁한 생활을 하던 시기였다. 사회 혼란은 미봉책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해결될 수 있는 단계였다. 이에 이성계와 정도전 그룹은 역성혁명을 통해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하여 사회 혼란을 쇄신하고자 하였다. 이 정도의 역사적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고려 멸망과 조선 건국이라는 급격한 변화를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살펴보자. 역성혁명을 주도하고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와 정도전 그룹은 새로운 왕조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국가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당시 많은 사람은 이 그룹을 지지하고 그 노선을 추종하였다. 고려의 신하였던 이들 가운데서도 조선 건국을 지지하고 또 수도를 한양으로 옮길 때 따라간 이들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개인적으로는, 고려 말기의 혼란을 고려 정부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역성혁명은 역사의 자연스러운 진행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 중에는 역성혁명을 지지하지 않은 이들도 있었다. 지조나 절개와 관련된 문제인데, ‘불사이군(不事二君)’이라는 유교적 가르침에 익숙한 사람들 중에는 차마 조선의 새 임금 이성계를 섬길 수 없었던 이들이 있었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사람들은 대개 지식인, 관료 그룹이다. 일반 백성들도 새 국가 조선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달랐을 텐데, 아쉽게도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전해 주는 기록을 찾기는 어렵다.

당시 다수의 관료와 지식인은 개성에 거주하였다. 그들은 고려의

신하였기에, 지방관이 아니면 대개 개성에서 관직 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하였다. 지식인들도 예비 관료로서 개성의 성균관 등에서 과거를 준비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들 관료·지식인은 조선 건국을 둘러싸고 지지파와 반대파로 나뉘었다. 전자는 조선 정부가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자 개성을 떠나 한양에 정착하였다. 반면 반대파의 경우는 그 운명이 크게 셋으로 갈렸다. 첫째는 죽임을 당한 이들이 있었다. 둘째는 낙향을 선택한 이들이 있었다. 마지막 셋째는 한양으로도, 고향으로도 가지 않고 개성에서 그대로 남아서 살아간 이들이 있었다.

이성계 그룹은 조선 건국에 저항한 세력을 강력하게 처벌하였다. 대표적으로 정몽주를 들 수 있다. 정몽주가 이성계 세력을 제거하려다가 죽임을 당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김진양과 차원부 등도 비슷한 운명을 맞았다. 김진양은 정몽주의 지시를 받아 이성계 일파를 탄핵하고 제거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었다. 정몽주의 피살로 계획이 실패로 끝나고 그는 체포되어 국문을 받은 후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죽었다. 또 전하는 말에 의하면 고려의 왕족이었던 왕 씨 중에서도 죽임을 당한 이들이 꽤 있었다. 이처럼 조선 건국 과정에서 이성계 세력을 반대하다가 죽임을 당한 이들이 있었다.

정몽주처럼 이성계 세력에 대해 직접적으로 저항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 세력을 추종하지 않았던 이들 중 일부는 낙향을 선택하였다. 당시 낙향을 선택한 대표적인 인물로 길재, 원천석 등을 꼽을 수 있다. 길재는 고려 말에 과거에 급제하고 개성에서 관직 생활을 하였다. 당시 이방원과도 사귀어 서로 아는 사이였다고 한다. 그러다 1390년 고려 멸망을 예감하고 고향인 선산으로 낙향하였다. 이후 벼슬이 주어졌지만 끝내 조선에서 벼슬하지 않았다. 원천석은 어려서부터 재

주와 명성이 있었지만 고려 말 정치 문란을 보고는 벼슬을 단념하고 치악산에 들어가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고 한다. 한때 이방원이 왕자였던 시절에 원천석을 스승으로 모신 적이 있다고 한다. 왕이 된 이방원은 원천석을 관직에 임용하려고 하였지만 끝내 거절하고 조선에서 벼슬을 하지 않았다. 이 두 사람 외에도 조선에서 벼슬하는 것을 거부하고 낙향을 선택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위의 두 유형의 사람들은 후대에 충절을 지킨 인물로 추앙받았다.

마지막으로 개성에 그대로 머물러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운명은 15세기에 크게 요동쳤다. 이성계 그룹 입장에서 한양으로 따라오지 않고 개성에 남은 고려의 옛 신하들 혹은 지식인은 꽤나 꺾끄러운 존재였던 것 같다. 개성에 남은 이들이 정몽주 그룹처럼 공개적으로 저항하지는 않았지만 한양으로 따라오지 않고 개성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이성계 그룹에서는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개성의 유민에 대한 이성계의 회유와 탄압

개성에 남은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성계 그룹은 회유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건국 초기인 만큼 성군의 이미지를 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 회유 카드란 바로 개성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과거를 시행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개성에 남은 사람들에 대한 ‘혹시’나 하는 기대는 ‘역시’나로 바뀌었다. 특별 과거를 시행하였지만 과거를 보러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성계의 분노는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이성계는

분노를 삭이며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어 회유하려고 하였다. 개성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과거를 한 번 더 시행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나였다. 시험을 보러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로써 개성에 남은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은 분명해졌다. 그들이 비록 정몽주 세력처럼 강력하게 저항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조선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성계 그룹은 이제 개성에 남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고 망한 고려의 유민遺民을 자처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성계 그룹은 조선 건국을 인정하지 않는 개성의 고려 유민들을 그대로 둘 수 없었다.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였다. 그것은 개성 사람들을 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던 과거를 개성에서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쉽게 말해 개성에서는 과거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린 것이다. 이는 개성 사람들의 관직 진출을 차단한 것으로, 고려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조선 정부에서 등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성계 집권 시기에 단행되었다고 하는 과거 금지령이 당장 개성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은 한양 천도로 더 이상 수도의 지위를 누릴 수 없었지만, 수도로서 누렸던 영화와 번성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사라지지는 않았다. 특히 태종 때까지는 조선 국왕들은 개성과 인연이 깊었다. 이성계는 무장으로 활약하여 명성을 얻고 그것을 토대로 결국 개성에서 왕위에 등극하였다. 정종과 태종은 개성에서 자랐기 때문에 개성은 그들의 고향인 셈이다. 따라서 개성에 대한 애정이 없을 수 없었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자주 개성으로 행차하였다. 태종의 경우 어떤 때는 수개월씩 개성에 머물기

도 하였다. 당시만 해도 개성에는 고려 수도의 면모가 남아 있어서 건물
물이 즐비하였고 새 수도 한양이 부럽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조선 정부의 개성에 대한 태도는 변해 갔
다. 세종 이후의 국왕은 개성과 인연이 없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개
성에 대한 애정이나 미련이 없었다. 그들은 개성을 고려의 수도로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양 천도 이후 한두 세대가 지나
면서 어쩔 수 없이 개성은 옛 수도로서 면모를 잃어 갔다. 경제적 번성
도 옛말이 되었다.

개성 거주 고려 유민들의 선택, 장사

결국 15세기 중반 무렵이 되면 개성 사람들 중에는 생계를 걱정해
야 하는 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제한적이었다. 조선 사회의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사농공상士
農工商’을 들 수 있다. 이 중 사대부는 당시 최고의 존재였다. 그들은 글
을 읽고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에 진출하면 국왕과 국사를 논할 수 있
었다. 또 관료가 되면 생계도 해결되고 양반 행세도 할 수 있었다. 그
래서 많은 사람이 과거를 준비하고 관료가 되기를 꿈꿨다. 그런데 개
성에는 과거 금지령이 내려져 있었다. 개성 사람들은 과거 합격을 통
한 관직 진출은 기대할 수 없었다. 물론 한양 등 타지로 가서 과거를
볼 수 있었지만 대다수의 개성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과
거 금지령이라는 정치적 차별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지를 실감하게 되었다.

과거 금지령은 15세기 말에 풀리고, 그때부터 개성 사람들 중에서

과거 합격자가 배출되었다. 그렇지만 조선 정부의 개성 사람에 대한 차별은 형태를 달리해서 지속되었다. 우선 개성 출신 과거 합격자 수는 극히 적었다. 그뿐만 아니라 개성 사람이 과거에 합격하여 관료가 되어도 지방관을 전전하거나 중앙 관서의 5급 정도에 그치고 당상관^{堂上}으로 승진할 수가 없었다. 당상관이 되어야 국왕과 함께 국정을 논할 수 있다. 개성 사람들도 자신들이 차별을 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제3자의 눈에도 개성 사람에 대한 정치적 차별은 분명하였다. 여하튼 15세기에 개성 사람은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할 수 없었고, 따라서 관료가 될 수 없었다. 직업과 관련하여 개성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선택지가 없는 셈이었다. 그리고 과거를 통해 관리를 배출할 수 없으니 개성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모두 평민이 되고 말았다.

개성 사람들이 농민이 되어 농사지며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개성을 방문할 수도 있을 텐데, 개성을 가서 보면 분지 지형으로 그 내부가 결코 넓지 않다. 내부 면적이 좁으니 당연히 농지도 적었다. 농사만 지으며 살아가기에는 개성에는 농지가 너무 협소하였다. 이는 가난해진 개성 사람들이 농사를 생계 수단으로 선택하기도 어려웠음을 뜻한다.

‘사농공상’ 중에서 평판이 좋은 ‘사’와 ‘농’을 선택할 수 없게 된 개성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공’과 ‘상’이었다. 즉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수공업자와 상인이었다. 개성 사람은 결국 이 둘을 직업으로 받아들였다. 수공업자로, 상인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상인으로서 커다란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그 유명한 개성상인이란 말을 지금까지 전하게 되었다. 대개 개성상인의 기원은 위에서 살펴본 역사적 배경 속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조선이 건국되던 격변기에 개성에 그대로 남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조선 정부의 회유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고려 유민을 자처하였다. 조선은 개성에서 과거를 금지하는 것으로 그들을 차별하였다. 한양 천도 이후 개성이 급격히 무너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두 세대가 지나면서 옛날의 영화는 사라지고 먹고사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런데 그들은 과거 합격을 통해 관료가 될 수 없었다. 그렇다고 개성 내에 농지가 넉넉한 것도 아니어서 농민으로 생계를 이어 가기도 힘들었다. 그런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수공업자와 상인의 길이었다. 개성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숙명을 받아들였고 결국 상인으로 나서게 되었다.

상인으로 나선 그들이 처음부터 장사에 능숙했던 것은 아니다. 초기에는 시행착오를 적지 않게 거쳤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상인으로서 한층 성숙해 갔다.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 개성상인은 조선을 대표하는 상인이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호부터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시대